양촌선생(陽村先生) "서천견록(書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태갑(상)>의 "자주유종(自周有終)" 구절에 대해 선유(朱儒)들은 '주(周)' 자를 '군(君)' 자의 잘못으로 여겼는데 매우 문장의 뜻에 합당하다. 이 편은금문(今文)"에는 없는 것으로 공안국이 고문(古文)을 금문(今文)으로 정할때 '주' 자와 '군' 자의 옛글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 전한 것이리라.

25

<태갑감(상)>에 "왕조동궁, 거우, 극종윤덕 (王祖徂桐宮, 居憂, 克終允德:왕이 동궁에 가서 상중에 있었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마무리를 지었다)"이라는 구절이 있다. 생각하건대 순이 섭정하고 3년 상을 마치자 요 임금의 아들을 피하였고, 이윤은 섭정한 지 3년 안에 태갑을 내쫓았다. 누구는 피하고 누구는 내쫓은 것은 어째서인가?

맹자가 말하기를 "만약 순이 요 임금의 궁중에 머물면서 요 임금의 아들을 핍박하였다면 이것은 찬탈이다"라고 하고, 또 "이윤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지만 이윤의 뜻이 없다면 찬탈이다"라고 하였으니, 맹자야말로 순 임금과 이윤의 마음을 진실로 알았다. 또한 만세토록 신하들의 사특한 마음을 억눌렀으니 그가 인간의 윤리에 공을 세워 만세토록 영원히 힘입은 것이 이와 같다. "공로가 우 임금보다 못하지 않다"는 한유(韓愈)의말은 진실이다.

지금 '서경'의 본문을 보건대 <태갑(상)>에 "동(桐)땅에 궁궐을 지어 선왕을 가까이하여"라 하였고, 또 "왕이 동궁에 가서 상중에 있었다" 하였으니, '내쫓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른바 '내쫓다'라고 한 것은 후세의 호사가들의 말일 따름이다. 어떤 사람은 "만약 태갑이 끝내 변하지 않았다면 어찌 하였을 것인가?"라고 말한다. 이윤은 성인으로서 충성을 다하였으니 태갑이 변하지 않을 이치가 없다. 만약 태갑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또한 큰 난리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 악행이 크다면 종묘 사직을 받들지못할 것이니, 또한 탕 임금의 후손 가운데 어진 사람을 택하여 세울 따름이다. 대저 순에게는 요 임금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끝내 천자의 지위에 올랐고, 이윤에게는 탕 임금의 명령이 없었으니 끝내 신하의 도리를 다하여그 임금과 백성을 요·순 때의 임금과 백성과 같이 만들 따름이다.

26

"미자(微子)는 은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애통히 여겨 기자(箕子)와 비간(比干)과 계책을 논의하였다"고 '집전'에서 말하였다. 지금 부사(父師)인 기자와 소사(少師)인 비간이 묻고 답한 말을 보면 슬픔과 원망이 통절하여"상(商) 나라가 망하더라도 나는 남의 신하와 종이 되지 않겠다. 알리건대 왕자(미자)는 떠나라"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는 주(紂)가 반드시 망하리라는 것을 알고 종묘 사직이 망하는 것을 차마 견디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각각 스스로 마음을 점하여 선왕에게 뜻을 바친 것이다.

'집전'에 "기자는 옛날에 미자가 나이가 많고 또 어질다고 하여 제을(帝乙)에게 미자를 세울 것을 권하였는데, 제을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지금 주(紂)의 악행이 차고 넘쳐서 종묘 사직이 장차 망하려 하는데 권도(權道)를 행하여 미자를 세워 증묘 사직을 보존하지 못한 것은 어째서인가? 맹자가 제 나라 왕과 더불어 귀척지경(貴戚之卿)을 논하면서 '임금이 큰 잘못이 있으면 간하고 반복해도 듣지 않으면 갈아치운다"고 하였다. 이씨(李氏)가 말하기를 "미자·기자·비간의 세 어진 이들은 왕실의 귀족으로서 주(紂)에게 권도를 행하지 못하였고, 곽광(霍光)'은 왕실과는 이성(異姓)으로 창읍(昌邑)에게 권도를 행할 수 있었으니 이것은 권력을 위임받은 것이 같지 않기 패문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예전에 생각하기를 권도를 행하는 자는 시대를 구제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법도를 지키는 자는 도를 보존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긴다고 보았다. 성인은 권도를 행하고 성인에 못 미치는 자는 법도를 지킨다. 대신은 권도를 행하고 대신에 못 미치는 자는 법도를 지킨다. 그러므로 탕 임금과 무왕의 덕을 갖춘 뒤에야 명조(鳴條)와 목야(牧野)의 군사를 일으킬 수있으며, 이윤과 곽광과 같이 임무를 가진 뒤에야 동궁(桐宮)과 창읍(昌邑)의거사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저 성인은 하늘과 땅에 법도를 세우고 대신은 사직을 보존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다. 비록 성인의 덕을 갖추고 있다해도 지위가 없으면 법도를 지킨다. 그러므로 무왕과 주공은 권도를 행하였고 백이와 숙제는 법도를 지켰다. 비록 대신의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권력이 없으면 법도를 지킨다. 그러므로 이윤과 곽광은 권도를 행하였지만 부사(父師)인 기자와 소사(少師)인 비간은 법을 지켰다. 지위와 권력이 있는 자는 천하의 책임을 맡아야 하지만 지위와 권력이 없는 자는 다만 제 한 몸의 도를 다할 뿐이다.

이것이 미자·기자·비간 세 어진 이들이 스스로 마음을 정하여 선왕에게 뜻을 바쳤던 것일 따름이다.

27

성탕(成湯이 걸을 내쫓고 온 나라에 고하기를 '위대한 상제(上帝)께서 백성들에게 충(衷:진실한 마음)을 내려 주었다. 변치않는 성(性)을 따르고능히 그 도에 편안한 자가 군주이다"고 하였으니, 이는 임금은 백성들을잘 가르쳐야 됨을 말한 것이다. 무왕은 주를 정벌하며 군사들에게 맹서하기를, "하늘과 땅은 만물의 부모이고,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니, 진실로 총명한자가 원후(元后)가 되고 원후가 백성의 부모가 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임금은 백성들을 잘 길러야 됨을 말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43회〉

충의공(忠毅公) 권응수(權應銖) 장군의 창의(倡義)와 공업(功業) (9)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이때 왕세자는 명나라 황제(神宗)의 칙명을 받들고 전라·경상 양도의 대소 장수들로 하여금 명나라 장수가 있는 곳에서 회동케 한다고 했다. 충의공이 이 명을 듣고 휘하 군사를 인솔하고 가다가 언양에 이르렀는데 들으니, 왜적 8백여 명이 황룡사에 들어가 소장된 병장기와 군량을 약탈한다고 하자 충의공이 즉시 배도치행(倍道馳行:말을 급하게 달려나가)하여 절문 밖에서 적을 만났는데, 한 왜적의 추장(倭酋…왜추)이 검은 비단옷을 입고 자루가 긴 둥근 쇠부채를 휘두르며 많은 보병과 기병(步騎)를 거느리고 길을 메우며 내달아 나왔다. 이에 충의공이 팔 힘을 분발하여 크게 호통 치며 활을 쏘아 즉시 사살해 버리니 왜적의 무리가 모두 '놀라고 두려워 벌벌 떨며(驚怖)' 죽기로 달아나느라 무늬 있는 값진 비단과 보물들을 챙길 겨를도 없이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이에 아군이 승승장구하여 적을 무찔러 목을 벤 것이 심히 많았다. 이로 인하여 경주와 울산 경계 상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경비를 더 엄중히 하였다.

같은 해인 1594년 7월에는 충청도 방어사를 겸하여 이사명(李思命)의 군대를 대신 거느리게 되었다. 은진현감 이곡(李轂)과 더불어 창암(倉岩)에서 왜적을 께트리니 왜적들의 장수인 가토오 키요마사(加藤清正; 왜군 제9군 가운데 제2군 사령관. 가장 지독하고 악랄하기로 유명한 장수)가 도주케 하였다. 이 때 가토오가 거느린 영남우도의 왜적 보루에 대해서 경상좌병사 고언백(高彦伯, ?-1609, 교동의 향리로서 무과에 급제, 임진왜란 때 왜적을 쳐서 군공을 올려 양주목사, 경기도 방어사로 충의공과 함께 선무공신 2등에 책록 되고 제흥군 濟興君에 봉해졌다)이 조정에 올린 장계에 "양적(兩賊)이 서로 모이니 그 상태로 보아 적정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여, 임금이 이를 걱정하여 곧 충의공에게 유시하기를 '고언백과 협심하여 왜적에 대비하라' 고 하였다.

이에 충의공이 정용(精勇)한 병사를 모아 경계하며 곧 군병을 발동하려고 하는데 마침 고언백이 사람을 보내 원병을 청하므로, 충의공이 이곡과 더불어 사잇길로 곧바로 치달려가 창암에 이르러 기병(奇兵;갑자기 치고 나오는 군대. 돌격부대나 선봉이나 복병과 유사)으로 기다렸다. 얼마 후에 가토오가 성대한 위의(威儀)를 갖추고 왜적들의 무리에 옹위되어 다가왔다. 바로 이 때 충의공이 친히 1백여 정병을 거느리고 갑자기 치달려 쳐들어가 왜적들의 수십 급의 목을 베면서 유린하니 왜적들 무리가 크게 어지러워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자 급히 재차 합세한 장병들이 일시에 공격하여 대파하였다.

선조 28년(1595, 을미년), 충의공 50세 정월에 다시 경상좌도 방어사를 겸직하게 되었다. 4월에는 형산강 상류 쪽에서 왜적들을 대파하였다.

적은 울산과 기장·동래 등 지경에서 합세하여 도량하면서 서쪽을 도모하려고 준동하는 무리가 1만여 명에 달했다. 공이 먼저 흥해(興海)와 연일(延日) 두 고을에 첩서를 보내 영을 내려 병졸을 발하여 뒤에서 기다렸다가 거적(拒敵)케 하고 조방장(助防將) 김태허(金太虛)와 봉사(奉事) 전삼달(全三達) 등과 더불어 안강(安康)으로 달려 이르자 고을 군사를 거느린 권사악(權士諤)과 조열(曺悅) 등이 또한 모여와 합세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6)

논 어 해 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權貞澤

제 2 편 위 정(爲政)

제11장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정해진 구실밖에 하지 못하는 기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원문]

子曰 君子는 不器니라.

[자왈 군자는 불기니라.]

[이해]

군자는 모든 사물의 이치에 통요[通曉]하는 바라 대게 특정한 목적이나 실무에 능숙한 전문가나 기술적인 도구에 그쳐버리는 확정적[劃定的]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제12장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보편적이고 편협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편협하고 보편적이지 아니하다."

[원문]

子曰 君子는 周而不比하고 小人은 比而不周니라.

[자왈 군자는 주이불비하고 소인은 비이불주니라.]

[이해]

군자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사랑을 베풀음에 그 이상을 두나 소인은 개인의 손익 여하에 따라서 그 본색을 달리하기 때문에 편협하다는 말이다.

제13장

자공이 군자의 관하여 묻자, 공자가 말하였다. "그는 먼저 하고 싶은 말을 실행하고 난 뒤에 그것을 따른다."

[원문]

子貢이 問君子하되 子曰 先行其言이요 而後從之니라.

[자공이 문군자하되 자왈 선행기언이요 이후종지니라.]

[이해]

제대로 된 인격을 구비한 군자라면 실천이 앞서고 말이 뒤 따르는 범인과 확실히 다른 품격을 진닌 다는 말이다.

제14장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정해진 구실밖에 하지 못하는 기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원문]

子曰 君子는 不器니라.

[자왈 군자는 불기니라.]

[이해]

군자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사랑을 베풀음에 그 이상을 두나 소인은 개인의 손익 여하에 따라서 그 본색을 달리하기 때문에 편협하다는 말이다.

제15장

공자가 말하였다. "배우고 생각함이 없으면 오묘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로움에 빠지게 된다."

[원문]

子曰 學而不思則罔하고 思而不學則殆니라.

[자왈 학이불사즉강하고 사이불학즉태니라.]

[이해]

배우기만하고 그것의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허망한 것에 지나지 못하므로 군자의 높은 덕성은 학문과 사색의 병행해서 실질이 쌓이게 된다는 뜻을 강조한 말이다.

제16장

공자가 말하였다. "이단을 전공하는 것은 해로움이 있을 뿐이다."

[원문]

子曰 攻乎異端이면 斯害也已니라.

[자왈 공호이단이면 사해야이니라.]

[이해]

여기서의 이단이란 인과 덕이 기본이 되는 정통의 학문을 벗어난 제가의 허황된 잡설[雜說]을 의미한다. 올바른 배움이 아닌 것을 전공한다는 것은 정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무익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제17장

공자가 말하였다. "유야! 내가 네게 안다는 것을 가르쳐 주마,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실로 아는 것 이니라.

[원문]

子曰 由여 誨女知之乎아 知之爲知之요 不知爲不知가 是知也니라.

[자왈 유여 회여지지호아 지지위지지요 불지위불지가 시지야니라.]

[이해]

유[由]는 중유 즉 자로[子路]를 가리키며, 유가 이름이고 자로는 그의 자이다. 공자의 제자로 우직하고 용맹하였으며 죽음에 이르러서도 관을 바로 고쳐 쓰고 숨을 거둔다는 인물인데 공자보다 아홉 살이 연소하였다. 사람이 알고서 모른 체하는 것도 쉽지 안치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서 그쯤 되어야만 참으로 배우는 사람다운 자세에 합당하다는 말이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본원 종사 연구위원 권 혁 채

〈지난호에 이어〉

○ 子 曰(자 왈) 君子有三戒(군자유삼계)하니 小之時(소지시)엔 血氣未定(혈기미정)이라 戒之在色(계지재색)하고 及其壯也(급기장야)하면 血氣方剛(혈기방강)이라 戒之在鬪(계지재투)하고 及其老也(급기노야)면 血氣旣衰(혈기기쇠)라 戒之在得(계지재득) 이니라.

해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으니 연소(年少) 할 때는 혈기(血氣)가 정하여지지 않았는지라 경계할 것이 여색(女色)에 있고, 몸이 장성함에 이르면 혁기가 바야흐로 강성한지라 경계 할 것이 싸움하는데 있으 며, 몸이 늙음에 이르면 혈기가 이미 쇠한지라 경계할 것이 貪(탐)하여 얻으 려는데 있느니라."고 하셨다.

참고: 寡..적을 과, 慾…욕심 욕, 避..피할 피, 易…쉬울 이, 君..임금 군, 戒…경계계, 壯…장대할 장, 剛..굳셀 강, 鬪…싸울 투, 衰…쇠할 쇠, 旣…이미 기, 得..얻을 득

○ 孫眞人 養生銘(손진인 양생명)에 云(운) 怒甚偏傷氣(노심편상기)오 思多太損神(사다태손신)이라, 神疲心易役(신피심이역)이오 氣弱病相因(기약병상인)이라 勿使悲歡極(물사비환극)하고 當令飮食均(당령음식균)하며 再三防夜醉(재삼방야취)하고 第一戒晨嗔(제일계신진)하라.

해설: 손진인의 (양생명)에 이르기를 "성내기를 심히 하면 기운을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을 상한다.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수고로워지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병이 따라 일어난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말 것이 며 음식은 마땅히 고르게 먹고 밤에 술 취하지 말며, 첫째로 새벽녘에 성내 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셨다.

참고: 손진인(孫眞人)은…도가에 속하는 사람으로 일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양생명(養生銘)…이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오래 살기를 꾀하는 계명.

銘..새길 명, 偏…치우칠 편, 償…상할 상, 損…덜 손, 疲…피곤할 피, 役…부릴역,

悲…슬플 비, 歡…기뻐할 환, 極…다할 극, 醉…술취할 취, 晨…새벽 신,

嗔…성낼 진, 꾸짖을 진.

○ 景行錄에 曰(경행록에 왈) 食淡精神爽(식담정신상)이오 心淸夢寐安(심청몽매안)이니라.

해설: 경행록에 말하기를, "음식이 깨끗하면 마음이 상쾌하고 마음이 맑으면 잠을 편히 잘 수 있느니라."고 하셨다.

○ 定心應物(정심응물)하면 雖不讀書(수불독서)라도 可以爲有德君子(가이위유덕군자)이니라.

해설: 마음가짐을 착하게 하여 모든 일에 대한다면 비록 글을 읽지 않았더라도 덕이 있는 군자가 될 수 있다.

참고; 應…응할 응, 雖…비록 수, 讀…읽을 독, 德..큰 덕,

○ 近思錄에 云(근사록에 운) 懲忿(징분)을 如敵人(여고인)하고 窒慾(질욕)을 如防水(여방수)하라.

해설: 근사록에서 이르기를, "분(忿)을 징계하기를 옛 성인같이 하고, 욕심을 막기를 물을 막듯이 하라."고 하셨다.

주석: 근사록(近思錄)은…송(宋)나라 때 주자(朱子)와 그의 제자인 여조겸(呂祖謙)이 함께 지은 책으로 인격 수양에 필요한 금언(金言) 622조목을 추려내어 14부로 나누어져 있는 책이다.

참고: 懲…징계할 징, 忿…분할 분, 窒..막을 질, 防..막을 방,

○ 夷堅志에 云(이견지에 운) 避色(피색)을 如避讐(여피수)하고 避風(피풍)을 如避箭(여피전)하며 莫喫空心茶(막끽공심다)하고 小食中夜飯(소식중야반)하라.

해설: 이견지에 말하기를, "여색을 피하기를 원수 피하는 것과 같이 하고 바람을 피하기를 날아오는 화살 피하는 것 같이하며 빈속에 차를 마시지 말고 밤중 에 밥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

주석:이견지(夷堅志)는…송(宋)나라 때 사람인 홍매(洪邁: 1123-1202)가 민간의 이상한 일이나 이야기를 모아 엮은 설화집인데 420권으로 되어 있다.

참고: 夷…오랑캐 이, 堅…굳을 견, 箭…화살 전, 喫…먹을 끽, 茶…차 다, 飯…밥 반

○ 荀子 曰(순자 -왈) 無用之辯(무용지변)과 不急之察(불급지찰)을 棄而勿治(기이물치)하라.

해설: 순자가 말하기를,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아니한 일은 살펴 그만두고 다스리지 말라.' 고 하셨다.

주석: 순자(荀子: BC 240-345)...전국시대(戰國時代)의 조(趙)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황(況)이고,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였으며 저서로는 "순자"가 있다.

참고: 荀..풀 순, 辯..말 잘할 변, 察..살필 찰, 治…다스릴 치.

세무법인 和仁
◎ 세무상담, 세무신고대리, 기장대리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및 신고대리
◎ 법인설립, 법인전환, 각종세무컨설팅
대표 / 세무사 권 혁 창
Mobile:010-3680-5057
E-mail:fax21@yahoo.co.kr
본 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427번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동부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청과물시장 3층 41-1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일도 철학원 작명 개명 상호 전문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역술인의 명예)
희소식 :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의정부 전국 안동권문
전국 국가유공자 직계가족에게 타 작명소에서 20-30만원을 할인(반값에)해드립니다.
● 평생 사주 재물운 궁합·택일 건강운 미래운
심리상담자격 노인건강지도자격=노인치매예방질병자격증 소지
서울 도봉구 쌍문3동 88-21 편의점(2층) (심리상담실 운영 자격有)
전화 : 02)987-3265 팩스 : 02)996-9857 010-9762-762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위치 : 전철 4호선 쌍문역 4번출구 100m(편의점2층)
◆ 옛날 공자님의 말씀 이름이 좋으면 출세, 잘먹고 산다
◆철학은 미신이 아니고 학문이고 과학이다
일도 철학원 권 영 섭

안동능곡회
회 장 권영훈 상임부회장 권순창
부 회 장 권중익 감 사 권기형 권오건
운영위원장 권기덕 재무국장 권태형
사무국장 권기춘
분과위원장 권기락, 권은달, 권기호, 권순용, 권용철, 권진업, 권우성